

다산포럼



송혁기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저드랑이어서 지독한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었다. 그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없었고 집안 식구들마저 견디지 못할 정도였다. 남들이 그토록 힘들어 하니 본인도 괴로울 수밖에 없어서, 집을 나서 방랑길을 떠났다. 그런데 길에서 우연히 만난 한 나그네가 그와 동행해 주며 변변히 술과 밥을 사는 것이었다. 오래도록 그렇게 하니 하도 이상해서 물어보았다. "내 몸에서 나는 악취가 하도 심해서 주변 사람들은 잠시도 견디기 힘들어 하지요. 그런데 당신은 나를 버리는게녕 오히려 이렇게 잘 대접해 주니 무슨 까닭인지요? 나쁜 냄새마저 있을 만큼 좋은 게 있는 건가요?" 그러자 그 나그네가 웃으며 말했다. "바로 그 냄새를 제거 즐기기에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지요. 이 냄새가 없었다면 당신과 함께할 이유가 어디 있겠소?" 악취를 즐기다니, 이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하긴 '장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한다. 목에 크고 흉측한 흑이 달린 사람이 제나라 위공에게 유세를 했는데, 위공이 그를 하도 좋아해서 흑이 없는 보통사람을 보면 오히려 목이 너무 아وى어 보일 정도였다고 한다.

남과 다른 길을 가는 삶

나쁜 냄새를 좋아하는 것이나 흉측한 흑을 좋아하는 것 모두 이해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다. 조선 후기의 학자 유희가, 영남 지방으로 유학을 떠나는 친구 박기순을 전송하며 써 준 글에 나오는 이야기다. 유희 자신은 흉측한 흑이나 지독한 냄새보다 더 사람들의 취향을 거스르는 사람이라서 모두에게 외면을 받는 신세인데, 친구 박기순만은 그런 자신을 아름답고 향기로운 지초와 난초처럼 좋아해 준다는 말이 이어진다. 먼 길 떠나는 친구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겸손한 덕담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남기기에 표현이 심상치 않다. 유희는 경학과 역사는 물론 언어, 한글, 농업, 의학, 천문, 수리, 음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대한 저작을 남긴 독특한 학자였다. 비방에 휘말려 과거시험을 일찍 접게 되어 세상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찼던 유희는 농사와 의술로 생계를 이어가며 남들이 관심 가지지 않는 학문 분야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이러한 유희를 친구 박기순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박기순이 스스로 지은 호는 자소광부(自笑狂夫)다. 남들이 비웃거나 미친 사람 취급을 하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이 추구하는 길을 자유롭게 가겠노라는 뜻을 담은 것이다. 신체의 질병을 들어 말한 것이 오늘의 관점에서 불편하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유희가 강조하고자 한 것은 그만큼 남들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자의식이다. 소나 말의 눈에는 천하일색 서시(西施)라 해도 아름답게 보일 리가 없다.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아

름다움과 추함의 기준을 벗어나는 지점,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다시 생각해 볼 것을 요구하는 말이다. 주자학만이 학문의 본령이라 여기며 다른 분야를 무시하거나 과거시험을 통한 출세에 집안의 사활을 걸던 조선시대와 비교할 때, 오늘 우리 사회는 과연 개인의 취향이 존중받을 만큼 충분히 자유로운가? 청년들이 대외와 로스쿨로 쫓리는 현상은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다.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특정 분야에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고 그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면 낙오자가 되는 것처럼 절망하는 분위기가. 알아 안 보이는 풍광에 표류하며 나뭇조각 하나라도 잡아 보려고 발버둥치는 이들에게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라는 조언은 무책임하게 들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진정한 자신이라 하는 것인지? 유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한다. "이곳과 달리 질박한 풍속이 남아 있는 그곳에서 훌륭한 인물을 만나거든 물어봐 주시게. 우리 고을에 흑이나 악취보다 더 심하게 버림받은 이가 있는데 그를 치료할 약은 없겠느냐고." 이 외로운 길을 이해하고 함께 세상을 거슬러나갈 동지를 멀리서라도 찾고 싶은 간절함이 느껴진다. 누군가에게는 악취가 향기로, 추함이 아름다움으로 여겨진다면, 무용지물도 버려진 것에서 의외의 유용함이 발견될 수도 있다. 세상은 오히려 트렌드 바깥에서 자신만의 길을 가는 이들로 인해서 진보되어 왔다.

社說

정부, 못다 지킨 '5월 약속' 이행 최선 다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거의 매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미안의 과제로 남아 있는 5·18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오월 정신 계승을 약속하고 광주의 아픔을 공유했다. 광주일보 취재팀이 지난 4년 동안의 문 대통령 기념사를 분석한 결과 5·18 관련 정책 과제는 크게 열 가지였다. 이들 과제는 그동안 얼마나 이행됐을까. 문 대통령의 5·18 약속 중 핵심은 80년 5월 당시 발표 과정 및 책임자, 헬기사격·암매장·성폭력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2017년 기념식 때부터 매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속한 구성과 출범을 강조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2019년 말에야 현실화됐다. 이러한 제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조사위 출범이 지연되면서 진상 규명 활동(2020~2023년)은 다음 정부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헌법 개

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사실상 폐기돼 큰 아쉬움을 남겼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정 역시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태껏 국회에 계류 중이다. 5·18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목숨을 던진 박관현·표정두·조성만·박래전 등 민주열사자 대한 추모 사업이나 경찰관·군인·해직기자 등 희생자에 대한 명예 회복 조치도 미흡하기만 하다. 그나마 옛 전남도청 복원은 오는 2024년까지 진행되면 완료될 예정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문 대통령의 열 가지 약속 가운데 두 가지만 완료됐고 여섯 가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백지화되거나 담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결국 '절반의 성공'인 셈이다. 이제 문 대통령의 임기도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진상 규명과 오월 정신 계승 등 문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새 민주당 대표 선출 호남정치 복원 계기로

새 민주당 대표로 뽑힌 고흥 출신 송영길 의원(58·인천 계양읍)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송 대표는 4·7 재보선 참패로 확인된 민심을 수습하며 당 쇄신을 이끄는 동시에 차기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책무를 안게 됐다. 또 윤호중 원내대표 및 새롭게 지도부에 입성한 최고위원들과 함께 정권 재창출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송 대표 앞에 놓은 현실은 만만치 않다. 불과 0.59% 포인트 차이로 친문 주자인 흥영표 의원을 간신히 누른 데다 강성 친문인 김용민·강병원·김영배 의원이 모두 지도부 입성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당내 친문 진영과 소통의 폭을 넓히는 등 당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당의 쇄신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를 놓고 주류·비주류로 갈려 소모적 논란에 휩싸일 경우 민심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 있

기 때문이다. 송 대표는 광주 대동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왔다. 2000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로 정계에 입문, 그해 16대 총선에서 37세의 나이로 국회에 입성한 뒤 18대까지 내리 3선을 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당선됐으며, 2014년에는 지방선거 패배 뒤 여의도로 복귀해 20대~21대 총선에서 연달아 당선된 5선 의원이다. 이번 송 대표의 당선은 그가 이 지역 고흥 출신이라는 점에서 호남 정치의 미래를 위한 디딤돌을 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낳게 한다. 특히 최고위원 당선에 예상됐던 서삼석 의원(무안·신안·영암)이 예상치 못한 내내 친문 진영과 소통의 폭을 넓히는 등 당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당의 쇄신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를 놓고 주류·비주류로 갈려 소모적 논란에 휩싸일 경우 민심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 있

기 고



김양수
전 장성군수

코로나19 시대를 살다 보니 너무나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 보자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 확진자 수가 얼마 증가했고, 거리 두기는 몇 단계로 조정되었는지 언론 보도의 앞자리를 차지한 지 오래다. 정치권과 국회도 재난 지원금 지급액, 아파트 가격 등락, 부동산 투기 실태 등 당면 현안에 매달리느라 여념이 없다. 중·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시선과는 거리가 멀다는 뜻이다. 이런 와중에 긴 호흡으로 멀리 내다보며 차분히 미래를 준비하는 분야가 있다. 전라남도의 인재 육성 정책이 좋은 본보기다. 민선 7기 들어 전남도는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란 이름 아래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을 찾고 키우는 일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얼마 전 이 사업의 이모저모를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다. 저금리 시대라 기금 이자 수입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장학금을 도비로 매꾸어 주나 보다 생각했던 고정관념은 보기 좋게 깨졌다. 단순한 장학금 지급 수준을 뛰어넘어 훨씬 체

인재 육성에 전남의 미래가 걸렸다

계적이면서도 담대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인재 발굴 및 지원 대상자로 꿈나무인 어린이나 청소년은 물론 산업 현장의 청장년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1인당 최대 1억 원까지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해외 유학생 제도가 돋보였다. 장차 세계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 양성의 동용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중화권 전문 인재 및 지역 대학 연구 인재 육성은 대학 생활에게 희망을 안겨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 대학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장기간 맞춤형 재능 개발비와 함께 전문가 컨설팅, 멘토링을 동시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 으뜸 인재 육성의 디딤돌이다. 이 밖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확실적인 학업 성적 우수자 지원이 아닌 예능 영재 키움, 창의 과학 교실(AI비전 캠프, 노벨 캠프)과 생각을 깨우는 인재 학당 운영, 미리 보는 진로 체험 등은 청소년의 꿈을 키우는 새싹 인재 육성책이다. 또 청년 무한도전 프로젝트, 변화를 선도하는 경제마당, 도민 행복대학 등 지역 혁신 리더와 산업 인재 육성도 기대를 모은다. 전남도는 이렇게 매력 있는 맞춤형 지원 제도를 촘촘히 마련하고, 지역 곳곳에 숨어 있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9년에 전국 최초로 인재 육성에 중요하지만 사회악이 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 교육도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왜 흡연, 도박, 알콜중독, 난폭운전, 범죄행위 등 나쁜 습관을 반복하는가? 나쁜 습관 때문에 좋지 못한 인성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성공의 기회마저 놓치는데 말이다. 그러면 중독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알면서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며,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먼저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목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까닭은 일시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 습관화된 행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지면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

고 있다. 한해 2~3억 원에 불과하던 후원금은 지난해 40억 원으로 훌쩍 뛰었다. 과거에 비해 몰라보게 늘어난 사업 규모와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마음이 든든하다. 하지만 관계 부서에서는 흑시 '가뭇의 단비'를 놓치는 사례가 없는지 우려하고 있다. 아직 프로젝트 인지도가 낮아 언제 어디에 지원 신청을 하는지 몰라 누락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언론 홍보에 더 힘쓰겠다고 한다. 아무쪼록 지원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인재와 학부모들은 전남도 희망인재육성이나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문의하시기 바란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오늘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전남의 미래가 걸린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에 코로나 극복 못지않은 행정력과 재정력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뒤떨어진 전남이 선별 지역을 따라잡고 추월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 개발(HRD)을 모멘텀으로 삼는 것이 현명하기 때문이다. 인재 육성 사업의 성격상 성과가 단기간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가시적인 토건 사업에 밀릴 수가 있다. 하지만 당대보다는 후대를 위해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내일을 열어야 하겠다. 과거에 선형들께서는 사람 키우는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일컬었다. 외적이 침입해 난리가 났는데도 서당 운영을 멈추지 않았고, 6·25 전쟁의 포연 속에서도 피난지에 전시 연합대학의 문을 연 우리가 아닌가.

기 고



김한호
문학박사·문학평론가
전 고흥대학교 교장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속담이 있다. 한번 길들여진 습관이 평생을 간다는 말이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인생 목표를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나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는 사람은 성공은커녕 평생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습관은 자기 스스로가 만들지만 한번 형성된 습관은 자신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매일 결정하는 무수한 선택들은 그때마다 생각해서 내린 결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습관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만큼 습관은 본능처럼 잠재의식으로 저장되며, 습관적인 행동은 무의식 중에 나타난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40%는 습관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습관

좋은 습관은 성공의 비결

를 형성한다. 그 습관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좋은 습관이나, 아니면 인생을 실패로 이끄는 나쁜 습관이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인성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의 기본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예절, 질서, 정결, 정직, 성실, 봉사, 규칙적인 생활 등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다. 그래서 지식 교육과 더불어 올바른 인간이 되는 인성교육을 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회악이 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 교육도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왜 흡연, 도박, 알콜중독, 난폭운전, 범죄행위 등 나쁜 습관을 반복하는가? 나쁜 습관 때문에 좋지 못한 인성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성공의 기회마저 놓치는데 말이다. 그러면 중독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알면서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며,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먼저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목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까닭은 일시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 습관화된 행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지면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

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습관화된 잘못된 행동을 바꾸려면 믿음의 의지를 갖고 좋은 습관을 집중하여 반복해야 한다. 연구 결과 어떤 행동은 좋은 습관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66일간의 반복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한다. 좋은 습관이 많아지면 그만큼 나쁜 습관을 줄일 수 있다. 우리 머릿속에는 습관 신경이 존재한다. 변화를 불러오는 습관은 '보상-긍정적 변화-성취의 기쁨'이라는 선순환 고리를 만든다. 그런데 잘못된 습관을 고칠 때 감정적이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존의 습관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좋은 기분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스스로에게 의욕을 불어넣어야 한다. 좋은 습관이 형성되면 인생이 바뀐다. 성공한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 '롤 모델'로 삼아 좋은 점을 본받으려고 노력했다.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한 사람들의 좋은 습관을 닦아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릴 때 부모로부터 좋은 습관을 교육받은 사람들이다. 또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목표를 향한 도전 의식을 갖고 꾸준히 노력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인성교육은 가정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기르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無等鼓

요즘 우주 개발과 우주여행 관련 뉴스를 접하는 기회가 부쩍 늘었다. 최근에는 '우주선 심야 해상 귀환 성공'과 '우주여행 티켓 판매' 뉴스가 눈길을 끌었다. 지난 2일 새벽 3시(미국 동부시간) 미국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 유인 우주선이 멕시코만 바다에 안전하게 착수했다. 네 개의 커다란 낙하산에 매달려 천륙 같은 밤바다에 천천히 착수하는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봤다. '크루드래곤'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우주선에는 국제 우주정거장(ISS)에서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체류하며 임무를 수행한 미국과 일본 등의 우주인 네 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또 다른 우주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은 우주여행 티켓 판매에 나섰다. 자신들이 개발한 우주 관광 로켓 '뉴 셰퍼드'에 승객을 탑승시켜 고도 100km 이상까지 올라간 뒤 지구궤도를 도는 여행 상품이다.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화 2억 원대로 예상된다. 우주여행 희망자가 회사 홈페이지에 이름과 이메일을 올리면 업체는 고객에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최근 2년째 코로나19 여파로 '집콕' 생활이 늘면서 시민들의 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직접 전체를 관측하겠다는 욕구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행성이나 성단·성운을 두 눈으로 관측하기 위해서는 천체망원경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때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천체망원경 수요가 폭발적이어서 공급이 달할 정도라고 한다. 중고로 거래되는 물품 역시 마찬가지다. 또한 은하수와 같은 천체사진을 직접 찍고 싶다는 이들도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집콕'을 하는 동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인간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우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최근 '50, 우주를 알아야 할 시간'을 펴낸 천문학 작가 이광식(70) 씨는 "우주를 사색하다 보면 그 시간의 장구함, 그 공간의 광막함을 늘 생각하게 된다"면서 "우주를 아는 것은 우리 자신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말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우주를 알아야 할 시간을 제공해 준 셈이다.

우주를 알 시간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속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